

난감한 정부, 대북 좌표설정 고심

대화 복원력 상실 우려... “시간이 약” 관망 모드

6자회담 재개 좌초위기... 북핵 논의 미·중 넘어 갈수도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공개 이후 정부가 향후 대응좌표 설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과의 대화거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대전제로 삼은 기존 전략 틀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적 논란이 불붙고 인력론까지 부상할 경우 대북 정책의 ‘중심 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차적 고민은 남북관계에 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 견인력이 무력화되고 자칫 강경대결 국면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측이 비밀접촉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정상회담 제안을 ‘걸어찬’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핵 외교에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결국 북핵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관리의 지렛대를 잃게 될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남북대화(서울)를 출발점으로 북미대화(워싱턴)를 거쳐 6자회담

(베이징)으로 나아가는 3단계 접근안이 자칫 좌초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단계안은 우리 정부가 분명히 이니셔티브를 쥐어온 6자회담 재개 해법이다. 작년 하반기 최초로 입안한 이후 미·중을 비롯한 관련국들로부터 일정한 ‘위임’을 받아 3단계안의 출발점인 남북대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거부를 선언하면서 ‘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2일 광주 송정동 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30여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한 기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핵 문제를 남북대화의 틀로 가져와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남북간 채널이 ‘경색’될 경우 북핵 논의의 이니셔티브가 미·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우려다.

이는 특히 북·중관계의 강화흐름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의 6자회담 재개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언권과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부로서는 상황을 ‘관리’하

는 쪽으로 자세를 잡고 있다. 당장 대응 카드도 마땅치 않은데다 선봉리 대응할 경우 국내적 논란만 키우면서 북한이 노리는 ‘관 흔들기’ 전략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상 황인식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마당에 당장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희스

광주시, 이탈리아서 800만달러 투자 유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운태 시장 일행이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8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 일행은 지난 1일 이탈리아 파도바 세라토호텔에서 열린 투자 및 수출협약 체결식에서 이탈리아 로비고에 있는 ‘인트라’사로부터 아르네코리아 1공장에 곤도라(공산품 진열케이스) 제조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르네코리아(대표 이상규)는 이탈리아에 분사를 둔 아르네(Arges S.P.A)의 한국 투자법인으로,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산업용 냉장·냉동 쇼케이스 분야에서 한국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아르네코리아의 투자는 광주 평동1차산업단지 내에 제1공장 냉장·냉동 생산라인을 평동2차산업단지에 건립한 제2공장으로 옮기고 제1공장에 새로운 시설 라인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을 활용한 LED전문기업인 ㈜티디엔지니어링(대표 박신남)도 이날 투자 협약식에서 이탈리아 베니스에 소재한 LAB23(대표 마르코 비반)과 200만 달러 규모의 LED관련 제품 수출 협약을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유럽투자유치단이 지난 1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파도바 세라토 호텔에서 광주지역 LED제품 수출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체결했다. 티디엔지니어링은 태양광으로 운용돼 값비싼 전기요금 부담이 없는 LED간판과 태양광 LED교통표지등을 비롯해 카타르 공공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각종 LED 제품을 조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특수목적기업인 체네 인터내셔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LED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광주 소재 LED 생산기업으로부터 광주의 우수 LED 제품을 공급받기로 했다. 체네 인터내셔널은 이탈리아

아 베네주 주 정부 인사와 문화에 솔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특수목적 기업으로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 파도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 시장 일행은 이어 베니스와 밀라노에서 문화산업 분야 업무협력 추진과 비엔날레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파도바는 이탈리아 북동부의 작은 도시로, 갈릴레오가 1592년부터 1610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던 파도바대학(1222년 설립)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

孫 “정상회담 추진 정정당당해야”

정동영 “北 비밀접촉 공개는 잘못”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접촉설을 둘러싼 북측의 폭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을 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도자는 표리부동한 정치, 정략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겉으로는 국민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뒤에서 돈봉투를 주며 거래를 시도한 것, 국내내외 남북정책과 북한을 대북정책이 달랐던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은 잘못했다”며 “그렇게라도 해서 남북대화의 불씨를 트면서 화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정착시켜 남북이 잘 사는

남북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오직 보고 갈 것은 남북의 국민과 인민으로, 인민의 민생과 평화만을 보고 가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측의) 불신이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마음을 열고 정상회담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북한이 정상회담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남북관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며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사과를 애걸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미군 주둔지 오염 조사 촉구

광산구, 국방부에 공문 민노당, 합동조사 요구

국내 미군 기지의 고엽제 매립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군 공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군 공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지의 오염실태 정밀 조사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와 공군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30여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토양 오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고 공군부대 측에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자료와 인공 토지에

대한 오염실태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민형배 구청장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공군부대에 대해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과정을 집중 점검했던 광산구는 올해도 7월 이후 한차례 공군부대를 상대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상 1년에 1차례 점검할 수밖에 없고 점검 시간도 2~3시간에 불과한데다 군부대 특성상 보안구역이 많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우려가 크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 공군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송정동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인 시공사 선정 의혹 밝혀야”

광주시의원을들 “입찰행정 신뢰 의문”

광주시의원들은 2일 하수 오염물질 제거시설인 총인 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의혹과 심사위원 해촉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선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인 처리 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잃은 것”이라며 “신뢰성 회복과 시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강운태 시장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총인 시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없는지라도 해촉된 데 대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야구장과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건립 등 많은 대형 시설물들을 건립해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강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인화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금품수수 등의 사유가 아니면 심사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없는데도 해촉한 것을 광주시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광주시의 입찰 행정은 더욱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구장 등 대형공사 발주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전례 없이 벌어진 심사위원들의 사표수리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된다면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행정사 무감사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일준비 ‘초석’ 다짐

민주평통 창설 30주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가 오는 5일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평통은 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처에서 3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기택 수석부장과 이장직 사무처장, 수도권 지역 운영위원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통일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평통은 창설 30주년을 맞아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뉴(New) 평통 신도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16개 시도에서 ‘통일정책 국민공감 대화’를 열었다.

최근에는 전국 600개교 30만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통일골든벨 예선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15일 본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병영체험 등 각종 청소년 통일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희스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정리 역서스 월화수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모대역 3.4번출구 ↓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유전일식 점심사
광주교육과학연구원
← 두원지구 제2순환도로 화순 →

점심 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